

대학의 진로교육 만족도와 영향요인 분석 연구: 인문·사회계열을 중심으로

최영준(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목 차 >

I. 서 론	3-4.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II. 대학교의 진로교육	IV. 연구 결과
III. 연구 방법	V. 결론 및 제언
3-1. 연구대상	참고문헌
3-2. 조사도구	Abstract
3-3. 자료수집	

-----< 요 약 >-----

이 연구는 대학에서 교양필수로 진로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A대학의 인문·사회계열 대학생 2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문·사회계열 대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진로교육의 주요 영역별 변인과 전반적 만족도의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였다. 진로교육 만족도는 전반적 만족도와 강사, 교육방법, 교육내용, 시설·환경, 교육 관련 서비스 만족도 변인으로 구성하고 성별 및 소속계열별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회귀분석, 진로교육 만족도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 진로교육에 대한 전반적 교육 만족도는 3.62로 나타났으며 강사 관련 만족도가 4.25로 가장 높았다. 시설·환경 관련 만족도가 3.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과 소속계열별 진로교육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소속계열별에서는 사회계열 학생보다 인문계열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진로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은 강사, 교육내용, 시설·환경 순으로 나타났으며, 3개 변인의 설명력은 약 53%였다.

키워드 : 대학생, 교육만족도, 진로교육, 인문계열, 사회계열

● 논문투고일 : 2022-07-25. ● 수정일 : 2022-08-16. ● 게재확정일 : 2022-08-25.

*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d333300@dankook.ac.kr

I. 서 론

대학을 졸업한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이 진로의 불확실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실업과 연계된다는 것은 가계부채의 악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가의 고용과 경제의 불안정, 빈곤을 증대, 경기불황, 국가 미래의 희망성쇠와 연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제정·입법화된 진로교육법 제14조에 의거,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도 진로교육 활성화에 대한 명문화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최영준, 2016). 기초·초·중등 교육기관 중심의 진로교육 지원이 대학교에서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규교육과정에 진로관련 교과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에서의 진로교육은 초·중등교육의 진로교육 내용과의 차별성과 연계성 부족, 진로교육과정에서 대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진로교육의 필요성 강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 그 성과도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13년 4년제 대학교의 졸업생 중 44.9%가 졸업유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취업준비 기간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채창균, 2016).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진로교육 한계로 노동시장에 진출한 청년층 대졸자의 20%가 대학졸업 후 약 2년 내에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은혜, 2016).

특히, 소위 취업취약 전공으로 구분되고 있는 인문·사회계열의 학생의 이직률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고용 수급불균형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보면, 인문·사회계열의 신규공급이 1,537천명, 신규수요가 1,476천명으로 공급과 수요면에서 다른 계열보다 6만4천명의 과잉 인력으로 인해 수급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시균 외 20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4년제 대학생 졸업 후의 주요 일자리 취득자 비율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김미란, 2012). 이와 함께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취업을 위해 사교육에 투자하려는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이상준 외, 2015). 인문·사회계열의 취업을 위한 사교육 투자증대는 인문·사회계열을 위한 일자리 수요에도 문제가 있지만, 대학교 내의 진로교육과도 관련이 있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대학 진로교육 만족도가 높았다면, 사교육 투자 비율은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2015년 6월 22일 진로교육법 제정 이후,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진로교육의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고등교육기관의 구체적 지원의 제시가 모호하여 학생중심이 아닌 학교중심의 진로교육의 한계가 있다(최영준, 2016)는 주장처럼, 고

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교육은 현재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계열과 학과의 차별없이 교양과정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 대부분이 대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중심의 강의개설수와 학생들의 강의이수자만 강조하고 있다. 학생중심의 진로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만족도가 요구되며,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진로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중요성에 의해 법으로 제정까지 한, 진로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교육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연구도 교양과목에서 진로교육을 수강하는 대학생 대상으로 전개하여 계열별 구분이 미진하였다. 특히 의학, 자연 또는 공과 등의 계열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에 취약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교육만족도와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교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취약 전공으로 분류되는 인문·사회계열의 학생들의 진로교육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대학교의 진로교육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II. 대학교의 진로교육

대학의 진로교육은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되기 이전인 2000년 초반부터 취업지원서비스를 대학교마다 도입한 후부터 확대하여 전개되었다. 그리고 진로교육 교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학생들을 지원하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시행하는 진로교육의 주된 내용은 비정기적이고 한시적인 취업진로 프로그램인 비교과 활동이 있고, 대학입학과 더불어 진행되는 교과로서 이수해야 할 진로교육 교과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의 취업과 졸업 후의 진로를 위해서 많은 대학들이 교과로서의 진로교육을 교양 또는 필수 교양이나 전공 교과목의 하나로 편성하고 있다(민준기, 2015). 대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를 보면, 초기 우리나라 대학에서 실시된 진로교육은 주로 대학생들의 취업과 경력개발 그리고 진로에 초점을 두고 실시되었고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진로교육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박가열, 2009).

대학에서 실시되는 진로교육의 방향은 첫째, 진로교육의 해당과목 담당교수들이 대학생들의 진로개발을 위해 진로교과를 통해 안내, 상담, 지도를 하고, 둘째 취업처 등의 대학조직이 진로나 고용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셋째, 학생들 스스로 고용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개발하도록 대학이 도와주어야 한다. 즉, 대학은 학생들이 직업 세계로 진입하는 단계의 마지막 정규 교육기관으로 많은 대학생들에게 효율적이

고 체계적인 진로개발을 지원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임언 외, 2005). 대학은 진로교육을 비롯해 취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정규교육기관으로서 자신의 교육책무를 다하며, 사회적으로 큰 이득을 주고 있다. 실제, 한국의 대학교육이 개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에 끼치는 이득을 측정한 연구 결과(반가운, 김영빈, 2002)를 보면, 한국은 OECD 국가에서도 높은 수준에 속한다. 우리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은 1997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추세는 둔화되고 있다. 대학에서 실시되는 진로교육이 노동시장과 일터와 연계가 되고 정책적 노력도 경주되어야 사회적 이득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대응을 위한 대학교수의 진로지도 역량에 대한 연구(이민욱 외, 2020)에 따르면, 많은 대학에서 진로교육을 비롯하여 취업관련 기구를 설립하고 학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수에게 대학생들의 진로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진로지도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된 교육 및 상담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고민도 ‘졸업 후 진로’로 나타나고 있었다. 전공불일치와 관련하여 전공불일치 정도가 높을수록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일자리 전공과 관련성이 클수록 임금상승 및 이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이과 및 공과계열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낮고, 전공분야의 일자리가 적은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의 전공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비율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대학 졸업생의 취업과 전공 차이를 연구한 결과(김미란, 2012)에서도 직업세계와 연계성이 높은 전공일수록 주요 일자리를 취득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대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최근 연구는 질적수준이 제고되고 다각화되면서 고용정책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대학들은 전공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등으로 취업에 제약이 따르는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진로교육에 대한 내용과 방법에 대한 대학의 진로교육 만족도 연구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진로교육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교육만족도의 개념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대학생의 대학교육 만족도 변인과 변인 영향력에 관한 연구(최영준, 2013)에 따르면, 학생중심의 관점에서 교육의 충족 또는 흡족한 마음을 말한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내용으로 국립대학교 사례 중심에서는 교육만족도에 교수강의, 교수-학생관계, 행정지원, 시설지원, 학비가 영향을 주었고(김정희, 박동진, 2012), 만족도 변환지수를 이용한 대학교육 서비스 품질측정의 요인분석에서는 교수요인, 직원요인, 공감요인, 신뢰요인, 유형요인 등으로 만족도 변인을 분류하였다(최경호, 강성, 2011). 사범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만족도 영역은 학교학습풍토, 교수-학습환경, 학교시설, 교수-학생관

대학의 진로교육 만족도와 영향요인 분석 연구: 인문·사회계열을 중심으로

계로 구분되기도 하였고(한은숙, 김종두, 2003), 대학생들의 만족측정 구성요인으로 교수, 교육프로그램, 학교의 지원체계, 물리적 시설과 설비, 학교의 풍토와 비전 등의 16개 하위 변인이 제시되기도 하였다(오영재 외, 2001).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의 교육만족도 선행연구 분석결과, 교육만족도 모형으로 전반적인 교육만족도 종속변인은 5개의 독립변인인 강사관련 만족도, 교육방법관련 만족도, 교육내용관련 만족도, 시설·환경관련 만족도, 행정서비스관련 만족도 등으로 설명되고 있었다(최영준, 2013; 최영준, 박금주, 2018, 권대봉 외, 2002).

III.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진로교육 만족도와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진로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검토를 거쳐 내용 타당성을 확보한 설문지를 활용하여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소속 계열별, 소속학과 등의 일반적 특성변인과 만족도 관련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교육만족도 선행연구(최영준, 2013; 이은혜, 2015; 주영주, 한상윤, 2015; 최영준, 박금주, 2018)에서 제기되었던 교육 만족의 내용접근 연구를 토대로 인문·사회계열 의 진로교육 수강학생들에게 적합한 진로 교육 만족요인으로 강사, 교육방법, 교육내용, 시설·환경, 교육관련 서비스 등의 5개 하위 변인을 구성하였다. 진로교육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은 5단계의 리커트(Likert-type) 척도로 구성하였다.

3.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A대학에 교양필수 교과로 개설된 진로설계 교과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인문·사회계열의 28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11~12월에 걸쳐 실시하였다.

3.2 조사도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소속단과대학, 소속학과의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교육만족도 변인으로 전반적 만족도, 강사, 교육방법, 교육내용, 시설 및 환경, 교육관련 행정서비스 만족도 등과 이들의 하위 변인 20개 등 총 23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표 1>과 같이 각 변인들에 대해서는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강사 관련 하위 5개 변인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 α 통계량이 .892를 나타냈다. 교육방법 관련 하위 4개 변인의 Cronbach α 통계량이 .876, 교육내용 관련 하위 4개 변인의 Cronbach α 통계량이 .940, 시설 및 환경 관련 하위 3개 변인의 Cronbach α 통계량이 .831, 교육관련 서비스 하위 3개 변인의 Cronbach α 통계량이 .849로 나타났다. 진로교육 만족도와 관련된 20개의 하위변인들에 대한 Cronbach α 통계량이 .955로 나타났다.

<표 1> 변인의 구성과 신뢰도 분석

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계수(α)
개인적 특성	성별, 소속계열, 소속학과	3	
교육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1	
	강사 관련 만족도	5	.892
	교육방법 관련 만족도	4	.876
	교육내용 관련 만족도	4	.940
	시설·환경 관련 만족도	3	.831
	행정서비스 만족도	3	.849
	교육 만족도 변인	20	.955

3.3 자료수집

2021년 2학기 진로설계 교과를 수강하고 있는 인문·사회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총 28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246부(87.9%)를 회수하였다. 이 중 끝까지 설문이 완료되지 않은 설문지 15부를 제외하여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총 231부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빈도분석, 분산분석, t-test,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문항구성은 <표 1>과 같이 선행 연구에서 내용 타당성이 입증된 문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강사 관련 만족도는 강사의 전문성, 강사의 학습자 욕구파악, 체계

적 수업 진행, 진로에 필요한 내용 제시, 강사의 태도, 외모로 구성하였고 교육방법 관련 만족도는 교육방법의 적절성, 교재의 우수성, 교육 기자재의 활용, 교육시간과 기간의 적절성 등으로 구성하였다. 교육내용 관련 만족도는 교육내용의 질적 우수성, 학습자 교육목표와 일치, 학습자 요구반영, 학습내용 활용성 등으로 구성하였고 시설·환경 관련 만족도는 책상과 냉난방 등 내부 시설 완비, 강의실 청결과 공간 확보, 부대시설과 주변 환경으로 구성하였다. 교육관련 서비스 만족도는 수강신청 편리, 교육정보 안내, 조교활동의 원활성으로 구성하였다.

3.4 가설설정 및 연구모형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가설을 설정한 결과 다음과 나타낼 수 있다.

성별에 따라 진로교육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다.

계열별에 따라 진로교육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다.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개의 하위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1)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교육만족도는 강사관련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다.
- 2)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교육만족도는 교육방법관련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다.
- 3)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교육만족도는 교육내용관련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다.
- 4)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교육만족도는 시설·환경관련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다.
- 5)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교육만족도는 행정서비스관련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다.

위에서 설정된 3번째 가설은 선행연구 고찰 결과에서 도출된 구체적 모형으로 아래와 같은 다중회귀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y = a_1x_1 + a_2x_2 + a_3x_3 + a_4x_4 + a_5x_5 + b \quad (a_1, a_2, a_3, a_4, a_5 \text{ 는 회귀계수, } b \text{ 는 상수})$$

즉, 종속변인인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y)가 5개의 하위변인인 강사관련 만족도(x1), 교육방법관련 만족도(x2), 교육내용관련 만족도(x3), 교육시설·환경관련 만족도(x4), 행정서비스관련 만족도(x5)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형으로 제시될 수 있다.

IV. 연구 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만족도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33.8%(78명), 여성 66.2%(153명)로 나타나 여학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계열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인문계열 학생이 49.4%로서 114명이었고, 사회계열 학생이 50.6%로서 117명이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백분율(%)	비고
성별	남성	78	33.8	
	여성	153	66.2	
소속 대학	인문	114	49.4	
	사회	117	50.6	
계	계	231	100.0	

인문·사회계열 대학교의 진로교육 만족도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 진로교육 만족도

변인	평균	표준편차
전반적 만족도	3.62	.996
강사 관련 만족도	4.25	.667
강사의 전문성	4.32	.782
강사의 학습자 욕구파악	4.16	.809
강사의 논리적, 체계적 진행	4.26	.814
필요한 내용제시	4.04	.934
강사의 태도와 외모	4.45	.616
교육방법 관련 만족도	3.91	.779
교재 우수성	3.69	.888
교육방법의 적절성	4.04	.815

교육시간과 기간의 적절성	3.94	1.038
교육기자재의 활용	3.96	.891
교육내용 관련 만족도	3.80	.884
학습자 교육목표와 일치	3.81	.928
교육내용의 질적 우수성	3.94	.904
내용 활용성	3.75	1.023
학습자 요구반영	3.71	.981
시설·환경 관련 만족도	3.67	.876
강의실 청결과 공간확보	3.87	.974
부대시설 구비와 주변환경	3.56	1.028
책상, 냉난방 등 내부시설	3.57	1.040
교육관련 행정서비스 만족도	3.82	.665
교육신청 편리	3.87	.780
교육정보 안내	3.71	.755
조교활동의 원활성	3.88	.740

만족도 변인은 평균 3.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편차는 0.616에서 1.040까지였다. 전반적인 교육만족도는 3.62였으며, 만족도 5개 영역의 만족도 평균을 살펴보면, 강사 관련 만족도가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방법 관련 만족도 3.91, 교육관련 서비스 만족도 3.82, 교육내용 관련 만족도 3.80, 시설·환경 관련 만족도 3.67 순이었다.

강사 관련 만족도에서 강사의 태도와 외모가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필요한 내용 제시가 4.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생들 대상 진로교육에서 필요한 내용제시가 부족하여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방법 관련 만족도에서는 교육방법의 적절성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시간과 기간의 적절성이 3.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진로교육이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양필수과목으로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였다.

교육내용 관련 만족도에서는 교육내용의 질적 우수성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자 요구 반영이 3.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의 진로교육 내용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시설·환경 관련 만족도에서는 강의실 청결과 공간 확보가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대시설 구비와 주변환경이 3.56으로 가장 낮았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진로교

육 수업교실과 취업준비센터, 산학협력관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A대학의 경우, 진로 및 취업 관련 부서가 각 개별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진로교육 관련 시설구비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교육관련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조교활동의 원활성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 정보 안내가 3.7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진로교육과 취업센터와의 연계 필요성이 교육관련 행정서비스 만족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진로교육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진로 및 취업 관련 부서 홈페이지, 대학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전달 방법의 활용이 요구된다.

대학에서 진로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진로교육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았다. 성별에 따른 진로교육 만족도에서는 강사관련 만족도와 교육방법관련 만족도가 유의한 차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강사관련 만족도의 차이는 아직까지도 잔재해 있는 남녀 성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진로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인문·사회계열의 여대생들이 진로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강사에게 동등한 교육을 받았다는 만족감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4> 성별에 따른 진로교육 만족도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 만족도	남학생	78	3.62	1.009	.087	.931
	여학생	153	3.63	.993		
강사 관련 만족도	남학생	78	4.08	.637	2.674	.008**
	여학생	153	4.33	.668		
교육방법 관련 만족도	남학생	78	3.76	.737	2.052	.041*
	여학생	153	3.98	.791		
교육내용 관련 만족도	남학생	78	3.76	.900	.519	.604
	여학생	153	3.82	.878		
시설·환경 관련 만족도	남학생	78	3.53	.879	1.754	.081
	여학생	153	3.74	.869		
교육관련 서비스 만족도	남학생	78	3.81	.639	.241	.810
	여학생	153	3.83	.680		

대학에서 진로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소속단과대학에 따른 진로교육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소속단과대학에 따른 진로교육 만족도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p
전반적 만족도	인문	114	3.71	1.028	1.315	.190
	사회	117	3.54	.961		
강사 관련 만족도	인문	114	4.44	.652	4.584	.000***
	사회	117	4.06	.627		
교육방법 관련 만족도	인문	114	4.22	.762	6.513	.000***
	사회	117	3.60	.670		
교육내용 관련 만족도	인문	114	4.03	.804	3.925	.000***
	사회	117	3.58	.907		
시설·환경 관련 만족도	인문	114	4.00	.674	6.170	.000***
	사회	117	3.34	.930		
교육관련 서비스 만족도	인문	114	3.94	.691	2.653	.009**
	사회	117	3.71	.621		

소속 단과대학에 따른 진로교육 만족도에서는 5개 하위 변인에 대해 유의차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 인문계열 학생들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5개 하위변인의 만족도에서 사회계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사회계열의 상경, 경제분야 등의 취업이 잘되는 계열의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기대가 학생들의 만족수준을 충족치 못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취업이 힘든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진로교육은 내용과 방법, 전문강사, 교육환경 등이 모두 새롭고, 만족스럽게 느껴진 것으로 해석된다.

즉, 진로교육법 시행 이전에 사회계열보다 상대적으로 빈약한 인문계열의 진로 교육과정이 보다 체계화되어 인문계열 학생들의 만족도가 제고된 것으로 보인다.

4.2 상관관계 분석결과

진로교육의 만족도 변인 간 상관관계는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진로교육 만족도 변인은 유의수준 $p < .01$ 에서 서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교의 진로교육 전반적 만족도에서 강사 만족도는 상관관계수 0.69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교육내용 만족도 0.648, 교육방법 만족도 0.585, 시설·환경 만족도 0.498의 순이었으며 교육관련 서비스 만족도 상관관계수는 0.411로 나타나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6〉 진로교육 만족도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변인		x1	v1	v2	v3	v4	v5
전반적 만족도	x1	1					
강사 만족도	v1	0.691***	1				
교육방법만족도	v2	0.585***	0.786***	1			
교육내용만족도	v3	0.648***	0.784***	0.808***	1		
시설·환경만족도	v4	0.498***	0.509***	0.615***	0.542***	1	
서비스 만족도	v5	0.411***	0.568***	0.582***	0.578***	0.572***	1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교육방법 관련 만족도와 교육내용 관련 만족도가 0.8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사 관련 만족도와 교육방법 관련 만족도의 상관계수가 0.786으로 나타났다. 강사관련 만족도와 교육내용 관련 만족도의 상관계수는 0.784로 나타났다.

4.3 다중회귀 분석결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5개 만족도 내용변인들로 이루어진 대학 진로교육의 전반적 만족도에 관한 회귀식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7〉 다중회귀분석

회귀모형	B	S.E	Beta	t	p
constant	-.556	.327		-1.700	.090
강사 관련 만족도	.752	.122	.504	6.164	.000***
교육내용 관련 만족도	.329	.097	.292	3.404	.001***
시설·환경 관련 만족도	.242	.070	.213	3.475	.001***
교육방법 관련 만족도	-.157	.115	-.123	-1.366	.173
교육관련 서비스 만족도	-.141	.092	-.094	-1.536	.126

R = 0.730 R² = 0.532 Adj R² = 0.522 F=51.231 p= 0.000***

수정된 결정계수 R² 가 0.532로 나타나 전체 5개의 만족도 하위 변인들이 전반적인 진로교육 만족도를 약 53% 정도 설명하고 있다. 즉, 강사 만족도, 교육내용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 교육방법 만족도, 교육관련 서비스 만족도에 약 53%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회귀계수들의 유의미성을 살펴보면, 강사, 교육내용, 시설·환경 관련 만족도가 $p < 0.05$ 의 유의수준에서 대학 진로교육의 전반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반적인 대학 진로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족도 변인들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강사 관련 만족도가 0.504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교육내용 관련 만족도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292로 나타났다. 세 번째, 시설·환경 관련 만족도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213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사, 교육내용, 시설·환경 관련 순으로 대학 진로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대학의 진로교육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진로설계 교과를 교양필수로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5개 하위 변인으로 구성된 만족도가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5개 하위 변인 중 강사 관련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시설·환경 관련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육만족도에서, 성별에 따라 강사 관련과 교육방법 관련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 만족도와 5개 하위 변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진로교육법 시행이전까지 성별에 따라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인문·사회계열의 여학생들에게는 진로교육의 전문적 강사와 교육방법이 만족스럽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구체적 사안이 향후 과제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소속계열에 따라 5개의 만족도 하위변인에서도 유의차가 나타났고, 인문계열 학생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의차가 2개 변인에서 나타난데 비해 계열에 따른 유의차가 5개 하위변인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계열별 차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계열의 상경, 경제분야 등의 취업이 잘되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기대가 만족수준을 충족치 못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취업이 힘든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진로교육은 내용과 방법, 전문강사, 교육환경 등이 모두 새롭고, 만족스럽게 느껴진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대학 진로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5개 하위 변인으로 구성된 진로교육 만족도 상관관계수는 모든 변인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진로교육 만족도를 강사, 교육내용, 시설·환경, 교육방법, 교육 관련 서비스 만족도가 약 53%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방법 관련 만족도와 교육관련 서비스 만족도의 회귀계수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5개의 변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강사 관련 만족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육내용 관련, 시설·환경 관련 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 진로 교육에 대한 교육만족도는 강사, 교육내용, 시설·환경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반영한 대학 진로교육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대학 진로교육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강사관련, 교육내용 관련, 시설·환경 관련 만족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교에서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진행할 때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진로교육의 교육방법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센터 및 산학협력단과의 교육행정연계를 통해 진로교육관련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성별 만족도에서 강사만족도와 교육방법 만족도가 유의차를 보이며 여학생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남학생들을 배려한 강사배정도 요구된다. 소속계열 별 만족도에서 5개 하위 만족도 모두에서 유의차를 보이며 인문계열 학생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사회계열 학생의 진로교육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회계열 학생들의 진로교육 과정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인문·사회계열 학생들 대상의 진로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강사, 교육내용, 시설·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진로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진행할 때, 이들 변인에 대한 고려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A대학이라는 한정적 고등교육기관과 인문·사회계열 대학생이라는 한정적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 또, 양적연구로 제시되다 보니, 일반적 특성으로 제시된 성별 그리고 인문계열과 사회계열별 차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진로교육에 대한 성별과 각 계열별 교육만족도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심층면접 등의 질적연구로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이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권대봉 외 (2002). 대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탐색적 논의, **교육학 연구**, 40(3), 181-202.
- 김미란 (2012). 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정착 과정과 전공성별 차이. *KRIVET Issue Brief 6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정희·박동진 (2012). 대학 교육서비스가 학생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A국립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8(3), 47-68.
- 민춘기 (2015). 대학 교양교육에서 진로교육의 방향— 수업 사례를 기반으로. **교양교육연구**, 9(4), 73-109.
- 박가열 (2009). 대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을 위한 교육요구 분석. **진로교육연구**, 22(2), 181-198.
- 반가운·김영빈 (2022). 대학교육의 사회적 이득 국제비교, *KRIVET Issue Brief 229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오영재 외 (2001). 대학교육의 성과에 대한 대학조직 내재 요인들의 영향력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9(3), 207-231.
- 이민옥 외 (2020).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대응을 위한 대학 교수의 진로지도 역량, *KRIVET Issue Brief 199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이상준 외 (2015). *청년취업아카데미의 대학 교과개편 유도 효과 및 인문사회계열 취업지원 중심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이시균 외 (2015).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3~2023*. 한국고용정보원.
- 이은혜 (2015). 대학 교육의 만족도와 전공-일자리 일치도, 전공 지식의 업무 활용도 및 임금과의 관계, *KRIVET Issue Brief 82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이은혜 (2016). 청년층 대졸자의 일자리 이동. *KRIVET Issue Brief 107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임언 외 (2005). *직업진로교육의 실태 및 과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주영주·한상운 (2015). 대졸 청년층의 학교 지원 및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내재적 직업가치 및 외재적 직업가치가 첫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8(2), 53-75.
- 채창균 (2016). 대학 졸업유예의 실태와 정책 과제. *KRIVET Issue Brief 108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최경호·강성 (2011). 중요도-만족도 변환지수를 이용한 대학 교육서비스 품질 측정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2(4), 765-773.
- 최영준 (2013). 대학생의 대학교육 만족도 변인과 변인 영향력에 관한 연구. **Andragogy Today**, 19(3), 61-83.
- 최영준 (2016). 「진로교육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평생학습사회**, 12(3), 59-79.
- 최영준·박금주 (2018).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만족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10), 361-367.
- 한은숙·김중두 (2003). 사범대학생의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0(3), 313-335.

2. 국외 문헌

- Folsom, B. & Reardon, R. (2003). Colledge career courses: Design and Accountabilit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4), 421-450
- Savickas, M. L. (2002). Career construction: A developmental theory of vocational behavior. Career choice and deveopment(4th ed.). *theory and practice, SanFrancisco: Jossey-Bass*. 149-205
- OECD. (2001). Information,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Paris Meeting. Jan, 15-16 2001.

<ABSTRACT>

The analysis on the Satisfaction of the Career Education in University: Focusing on Students in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Young-Joon Cho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atisfaction of career education with 231 college students who are studying in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of University A. The main research methodology is as follows. Firstly, the educational satisfaction is composed of overall satisfaction curriculum, instructor, educational method, contents, facilities and environment, and educational service. Secondly, we tested comparative analysis in gender, two colleges, correlation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sub-satisfaction factors. Finally, we tested regression for main effects factor for satisfaction.

As a result, the satisfaction of career education that was overall 3.62, the satisfaction of instructors was the highest scale at 4.25 and the satisfaction of facility and environment was the lowest scale at 3.67. In terms of gender, female students were satisfied more than male students. The main variables influencing educational satisfaction, in order, that is instructor, contents, and facilities and environment, as well as these factors have explanatory power of three variables was around 53%.

Keywords : university student, satisfaction of the education, career education, college of humanities, college of social sciences

* First auth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d333300@dankook.ac.kr